

농어촌公 구미김천지사, 농촌 일손돕기 나서

✎ 김철희 기자 | ㉠ 승인 2025.11.03 19:57



감농가 농촌일손돕기 활동 모습. 사진=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제공

[구미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구미김천지사는 최근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소재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.

이번 행복충전활동은 구미김천지사 27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수확기를 맞은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영농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.

구미김천지사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기부, 저수지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.

나창식 구미김천지사장은 "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,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